

# 강진 마량 '음악 흐르는 토요일수산물시장' 선다

### 내년 5월 개장... 할머니장터, 로컬푸드 직판장도

강진 마량항에 '수산물 토요일시장'과 '수상(水上市장)'이 조성된다. 청정해역의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라서 명물 탄생이 예고된다.

강진군은 "토요일음악회가 열리는 마량항 중앙과제 일원에 내년 5월 1단계 개장을 목표로 수산물 토요일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마량 수산물 토요일시장' 개장준비단은 지난 12일 지난 12일 강진군 마량면사무소

에서 회의를 갖고 다양한 발전방향과 의견들을 토의했다. 개장준비단은 정승준 부군수를 단장으로 교수와 전문가, 군민들이 참여해 기획총괄팀, 콘텐츠·프로그램개발팀, 시장운영팀, 기반시설 확충팀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현재 '수산물 토요일시장' 활성화 관련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군은 지속적으로 유사시설 사례분석과 주민설명회 개최,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

해 '마량 수산물 시장' 조성에 탄력을 붙여 나갈 예정이다.

수산물 토요일시장은 지역 명품콘서트로 자리 잡은 토요일음악회와 연계해 매주 토요일 신선한 해산물, 농·특산물, 할머니장터, 로컬 푸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마량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해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까지 40여억원을 들여 마량항에 3000㎡의 신규 수산물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상인, 소비자가 아름다운 마량항과 수산물과 먹거리를 즐기는 있는 명소로 꾸밀

예정이다.

앞서 군은 '마량 수산물 토요일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토요일시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통영과 부산, 일본의 와카야마 마리아시티 등을 방문해 성공한 수산물 시장의 요소와 특색 등을 파악했다.

강진원 군수는 "토요일시장이 들어서면 수산물 시장의 활력과 시장의 정겨움, 맛있는 수산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많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유건 대건건설 대표

### 영암군 변영회장 취임



유건(57·사진) 대건건설 대표가 최근 영암군 변영회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 회장은 "영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영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배가(倍加)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러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라는 군 슬로건에 걸맞은 단체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양극화된 지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신임회장은 영암군 청년회장과 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윤기 자르르 '고흥 물김' 구경하세요

고흥 김양식 어업인들이 최근 도화면 발포 위판장에서 물김을 위판하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수온하강 등 어장환경 호전으로 5만5000t의 물김을 생산, 400억원 /고흥=주각종기자 gju@

### 전북 소식

## 최치원 초상화 47년만에 정음으로 귀환

### 1831년 무성서원서 제작

### 한달간 시립박물관서 공개

통일신라시대 말기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초상화(사진)가 47년만에 정음으로 돌아온다.

정음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최치원 초상화를 장기간 방치되어 돌려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초상화는 최치원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에서 1831년 제작한 것으로, 보존 처리를 위해 1967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돌아오지 못했다. 정음시는 1992년부터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증명할 관련 서류가 사라져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정음시와 무성서원은 17일 환안 고우제(嚴安告由祭)를 연 뒤 정음 시립박물관에서 한 달 동안 이 초상화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환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신주(神主)를 다시 제자리로 모시는 것을 뜻한다.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시대 886년 정음 철보·태안·산내 일대를 돌보는 태산군수로 재임하며 선정을 펼치고 호남 유교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성종 때(1483년) 태산사가 건립됐으며 숙종 22년(1696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액(賜額)·임금이 서원에 이름을 지어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됐다.

정음시에 따르면 당초 무성서원에 보관돼 있던 최치원 초상화는 ▲1784년 하동 쌍계사에서 보관한 1점(고려시대 제작 추정) ▲무성서원에서 1831년께 제작한 1점 ▲1924년 석지 채운신이 모사한 1점(현재 정음 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 등 모두 3점이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와 1831년 초상화는 문화재 지정과 보존처리를 위해 1967년 문화재 위원 김삼기(당시 무성서원 원장)와 최순우 선생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1831년 초상화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나 다른 점은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정음시 관계자는 "초상화를 돌려받기 위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음=백기섭기자 parkks@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시대 886년 정음 철보·태안·산내 일대를 돌보는 태산군수로 재임하며 선정을 펼치고 호남 유교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성종 때(1483년) 태산사가 건립됐으며 숙종 22년(1696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액(賜額)·임금이 서원에 이름을 지어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됐다.

정음시에 따르면 당초 무성서원에 보관돼 있던 최치원 초상화는 ▲1784년 하동 쌍계사에서 보관한 1점(고려시대 제작 추정) ▲무성서원에서 1831년께 제작한 1점 ▲1924년 석지 채운신이 모사한 1점(현재 정음 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 등 모두 3점이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와 1831년 초상화는 문화재 지정과 보존처리를 위해 1967년 문화재 위원 김삼기(당시 무성서원 원장)와 최순우 선생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1831년 초상화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나 다른 점은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정음시 관계자는 "초상화를 돌려받기 위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양시 하수 환경 개선된다

### 국비 예산 136억 확보

광양시민들의 하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내년 하수관련 국비예산 13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51억 원 보다 85억원 크게 증가한 것이다.

내년 주요 투자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다압 급전하수도 정비사업(146억원), 초남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원, 하수도정비 종합관리지역 정비사업 80억원을 비롯해 광양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환경부 하수도 관련 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

에 한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여러 건의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외에도 신규사업에 대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광양시 하수도 공기업 예산규모가 전년도 177억에서 155억이 증액돼 3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광양시 이형철 과장은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 하수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기해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도시규모에 맞는 선진 하수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나주시 미국 어학연수 초·중생 20명 선발

### 내년 1월9일부터 한달간

### 홈스테이·정규수업 참관

나주시 초·중생 20여명이 겨울방학동안 미국 어학연수를 떠난다.

나주시는 총107명이 응시한 1차 필기시험과 2차 인터뷰를 거쳐 초·중 7개학교에서 1명씩, 모두 14명을 선발했다. 또 시는 동시대 여름방학캠프 성취우수자 6명(초등 3·중등 3명)을 앞서 선발했다.

특히 시는 연수학생 20명 가운데 저소득 학생 4명(초등 2, 중등 2명)을 자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어학연수는 내년 1월 9일에 출발해 2월 10일까지 4주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디스시 루

터던학교 정규수업에 참여해 미국식 수업 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또 4주동안 현지 가정에서 숙식하며 미국 학생들과 어울리는 홈스테이를 실시함으로써 문화습득과 현지적응력을 최대화할 예정이다.

강인규 시장은 "해외 어학연수 기회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시골 면지역 학생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와 영어 활용능력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동안 미국 웨네치 벨리대학에 초·중학생 30명을 보내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난 2011년 이후 총 170여명의 초·중학생 어학연수를 지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 전주고속터미널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

### 지하1층·지상 3층 규모

### 120억 투입 갤러리 등 설치

전주 고속터미널이 복합 문화시설을 갖춘 종합 터미널로 재탄생된다.

전주시는 "금호터미널(주)이 전주터미널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터미널은 현 터미널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총 120억원을 들여 2015~2016년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종합 버스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다. 1층에는

버스 이용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소,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갤러리 등 문화공간과 편의점, 소매점이 설치된다. 또 3층에는 1200㎡ 규모의 대형 서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호터미널은 종합 터미널이 완공되면 현재 연간 350만명인 이용객이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1만1000여㎡)은 1980년에 지어졌으며 5개 고속버스 회사가 하루 90여대, 620회를 운행하고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사가 9천 사할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기구점 대지 416㎡(126)공사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편성 최적합지 1984㎡(600) 감정7억7400 은행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층형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매도 천만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240) 건물 100㎡(30) 별장, 펜션, 민박집 적합 교환도 가능 3500만원
- 금매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15억 전세 9억 월 500 회사 사옥 등 적합 25억

### 투자 매도 교환

- 금매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건축물 대장 있음 950㎡(288)대출 9천 매도5백
- 금매 무안군 망운면 자연녹지 22238㎡(667) 대지 555㎡(168)대출 8천 매도 5백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수 수익 8억7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임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 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다용도 11억 3천
- 화정역 5분 거리 대지 645㎡(195)별장용 단독주택등 적합 3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 남도공인중개사

### <혁신도시 주변 매물>

####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림, 전방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광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려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감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길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 투자만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조건에서 더이상 싼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전복지지역(도로점)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 37만

### 신축 상가 임대

금호 2지구 먹자골목 중심 상권  
주차빌딩 1층 상가

- 면적 : 117㎡ ~ 175㎡ (1층), 258㎡(2층)
- 용도 : 모든 업종 가능
- 준공 : 2014. 12. 31
- 기타 : 면적, 임대료가 다양, 권리금 없음

###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주거지역, 주변 환경 및 조망권 최고,  
더 이상 좋은 전원주택지는 없습니다.

- 지역 : 1중주거지역(2필지)
- 지목 : 전
- 면적 : ①600㎡ ②780㎡
- 매가 : 3.3㎡ 당 140만

###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주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점,  
전원주택지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 지법문의 사절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려

5~7억원대 여돈들을 가진 50~60대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찾아서 투자한다!

###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OGV영화관 옆 3층건물

###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